

정점관측법에 의한 여대생들의 착의특성

- 서울의 여대생을 중심으로 -

최영순 · 박미애

중부대학교 패션디자인과

Characteristics of Female College Students Clothing in Campus with Fixed Point Observation - Focusing in Seoul -

Young-Soon Choi and Mi-Ae Park

Dept. of Fashion Design, Joongbu University, Daejeon, Korea

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field research is to determine consumer's fashion sense and provide helpful information to manufacturers when planning designs and merchandizing strategies. This study's purpose was to observe what was being worn, colors and tones. The method of research was fixed point observation using digital photos.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were female college students, 18-22 years old. The T-shirt has become the representative item for casual and comfortable wear by the female college students. Pants and blue jeans were worn more often than skirts as a lower garment. This shows that the students think about their activities when choosing a lower garment. The majority of these students chose clothing that functioned well for their school activities. Among students that wore skirts about half wore a functional knee length while the other half wore a more fashionable mini-skirt. These students appear to care about both fashion and function. Blue was especially popular, with 70.4% of all lower garments being blue. This effect makes the body look thinner and may be one reason why blue is so popular. White is a popular color as an upper garment. White upper garments are easily matched with any color, while blue upper garments coordinate well with similarly colored blue lower garments. The distribution of upper garment color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seasons. Blue jean tones were many and varied, while upper garments were mostly weak tones and bright tones of pale, light and soft.

Key words : fixed point observation, female college students, garment items, color, tone

1. 서 론

소비형태는 기호라고 하는 감성이 성립되어 소비자의 기호를 잡는 소위 감성제품은 불황 중에도 순조롭게 판매되고 있다. 종래의 대중소비시대는 지나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마켓이라는 소비자 중심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사람들의 다양한 감성을 이해하고 생산·소비체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패션산업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기획, 개발하여 적시적소에 공급하는 소비자 중심의 산업이며, 감각산업과 멋을 창조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은주, 2001).

소비자의 감성이 소비행동과 복장 등에 내재되어 있다고 예측하고 소비자의 감성을 분석하고 정확한 상품의 설계·기획에 도움이 되는 감성정보를 얻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본

연구는 가장 최신유행에 민감한 여대생 피복에 주목했다.

20대는 특히 성인으로서의 개인의 자아를 확립하기 위한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의복에 대한 관심이 커지므로 의복을 통해 의복 만족감, 혹은 의복 불안감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과도기에 겪는 심리적 불안감을 의복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따라서 의복이 가진 많은 속성 중 사회적 인정을 가장 중요시하게 되며 유행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임경복 외, 1995).

지금까지의 여대생들의 의복형태에 관한 연구논문들은 여러 시각에서 연구 되어지고 있었고, 분류별로 대표적인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여대생들의 가치관 및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행동의 연구 등이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임경복·임숙자(1993)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유행추구 집단, 가정지향성 집단, 보수적 알뜰 집단, 소극침체형 집단으로 분류하여 의복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의 관계에서는 주재은·정명선(2001)의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이 대체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

Corresponding author; Young-Soon Choi
Tel. +82-2-2643-5834, Fax. +82-2-2643-5834
E-mail: ma990415@chol.com

지 못해 신체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의복의 만족도가 다름을 시사했고 서희숙·송정아(2004)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를 원하고 있고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는 키가 커보이고 날씬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의 패턴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의복의 디자인과의 관련성에서는 유지현·한명숙(2000)은 여대생의 캠퍼스 패션 경향은 기능성과 활용성을 높인 캐주얼복이 주류를 이루었고, 색상은 상의의 경우 무채색이 주류를 이루었고, 하의로 청바지색인 청색과 검정색, 베이지 색상이 많이 보여지고 있음을 발표했다. 노경혜·이경희(2002)의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청소년의 대표적인 의복 아이템은 상의에 티셔츠와 셔츠를 하의에 청바지와 면바지를 착용했고 색채에 대해서는 블루와 베이지 색상이 많이 관찰되고 있었다.

이정숙·성수광(2004)의 연구에서 청바지는 신세대 여성들에게 대표적인 유니섹스의 의복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착용되어지고 있으며 특히 여대생들에게는 활동적이고 편안한 이미지의 아이템으로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주지역 여대생의 유행의 상 디자인 선호도 및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청주지역 여대생은 유행을 따라가기 보다는 캠퍼스 웨어로 적절한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었다(최종명 외, 1996). 김영자(1998)는 여대생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여대생들의 대부분이 스커트보다는 바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실용적인 의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숙·최종명(2001)은 대학생의 의생활 및 의복소비 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연도에 따른 변화를 비교검토 하고 있다. 1995년에 비해 2000년에는 의생활에서 유니섹스 경향이 강해지고 대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의복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혜원·고애란(1987)은 여대생 의복목록의 비교 분석 연구에서는 1976년에서 1986년의 약10년 동안의 여대생들의 의복의 소유목록 및 소유량, 가격, 만족도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연도의 변화에 따라 의복의 소유량은 많아졌고 캐주얼한 캠퍼스웨어가 선호되었다.

이상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패션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품기획에 반영시켜야 하는데 점차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개성화·고급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 조사의 적극적인 접근하는 소비자 수요의 객관화를 위한 기초가 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선호도, 의복행동, 의식조사등과 더불어 정점관측을 통한 소비자의 착용경향조사 및 정기적인 패션스트리트조사는 효과적인 머천다이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이호정, 1998). 관찰법의 하나인 정점관측법은 소비자의 착용실태를 직접 관찰하여 개별 소비자의 의류 품목 착용실태나 색채 경향등을 알 수 있어서 패션의 변화와 유행되는 패션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스타일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실증적인 정보를 위해 정점관측법이라는 직접적인 소비자 관찰을 통해

탐색적이고 구체적으로 집중적인 연구를 해서 캠퍼스 패션을 통한 여대생의 의류품목 착용실태와 의복의 색채경향 등을 조사 분석하여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기획전략 수립 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방법

여대생이 착용한 의복의 종류와 색채를 비디오촬영에 의한 정점관측법을 이용해 조사했다. 조사의 대상은 서울의 배화여자대학교와 한양여자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8세에서 22세의 여대생 1911명의 의복을 분석했다(Fig. 1).

2.2. 비디오 촬영조건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각각의 대학에서 가장 왕래가 많은 곳을 선정하고 오전 등교시간에 30분씩 촬영을 실시했다. 촬영기간은 2004년 5월~6월이다.

2.3. 집계방법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영상에서 착용자의 의복 종류와 색채를 관측법에 의한 카테고리별로 분류했다. 조사분석시 전체 화면내용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시각적으로 정확한 의복의 분류와 색상의 비교분석이 가능한 피험자만을 선택해 분석했다. 의복은 먼저 상의와 하의를 종류별로 분류한 후, 더욱 형태를 세분화했다. 본 연구의 색채검토는 비디오에 나타난 착용자의 의복을 일본색채학회의 PCCS의 색상환과 비교해 유사한 색상과 유사한 톤을 선정해 분석했다.

3. 결과 및 고찰

3.1. 의복의 종류 및 형태

서울지역 여대생 의복의 스타일을 종류별(상의, 하의), 형태별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하의는 청바지류를



Fig. 1. Photograph by digital camera.

jeans로 표기하고, 그밖의 면바지 및 직물바지류를 pants로 표기했다. 스커트는 길이와 형태별로 구분했다. 상의는 외관상 단일 아이템으로 보여지는 것을 T셔츠, 블라우스, 스웨터, 원피스 등으로 표기하고, 2가지 이상의 아이템이 보여지는 경우, 예를들어 T셔츠 위에 블루진 자켓을 입고 있는 경우, jeans & T-shirt로 표기했다. Suit & Blouse의 경우는 수트에 블라우스를 착용한 경우이다. 또한 T-shirt & T-shirt의 경우는 Top등의 T셔츠 위에 다른 T셔츠를 겹쳐 입어 네크라인에서만 겹쳐 입은 것을 알 수 있는 경우이며, layered의 경우는 긴 소매 T셔츠 위에 짧은 소매의 T셔츠를, Top등의 T셔츠를 두겹 세겹으로 입은 경우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한 형태의 아이템이라 생각되어 이번 조사에서는 각각을 분류하여 조사했다.

상의로는 T셔츠가 전체의 59.8%로 나타내 다른 의복의 종류보다 여대생에게 가장 많이 착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셔츠 블라우스, 가디건과 블라우스, 자켓과 블라우스의 의복의 종류순으로 착용되어졌지만 T셔츠에 비교해 보면 출현비율이 적었다. 이 결과는 소지하고 있는 의복수를 조사한 김희숙·최종명(2001)의 연구 결과와 노경혜·이경희(2002)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T셔츠가 캐주얼웨어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활동하기 편한 의복으로서 연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여대생에게 착용 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의로는 청바지가 37.9%, 바지가 38.0%, 스커트가 24.1%의 순서로 착용되고 있어 상의와 함께 하의 역시 활동성이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유지현·한명숙(2000)의 연구결과에서도 보여 지는데 최근 여대생들의 복식행동은 과거의 복식행동보다 훨씬 캐주얼화 되었으며, 복식으로 성적 매력이나 미를 추구 한다기보다는 실용성, 편리성 및 신체 보호성을 훨씬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이정숙·성수광(2004)의 연구에서도 청바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여학생들은 <남자답다. 유니섹시하다>보다는 <활동적이다. 편안하다>의 이미지가 보다 많이 평가되고 있어, 청바지 및 바지에대한 여대생들의 이미지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바지와 바지를 형태별로 보면 스트레이트 라인이 55~70%로 높게 나타나,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형태를 주로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루엣의 종류와 감정효과를 고찰한 연구(川崎, 1988)에서 보면 스트레이트 라인은 아워클래스, 피트 앤 폴, 텐트등의 라인보다는 기능성적인 면에서 높게 판단되고 있어,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일반적인 형태와 기능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청바지의 경우, 벨보텀의 형태가 22%를 나타냈고, 바지의 경우, 통바지, 반바지등의 형태가 착용되어져 전체바지의 형태중 32.5%로 나타났다.

스커트에서는 타이트형이 77%로 다른 스타일 주름과 플레어 보다는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장 이미지의 배치상태에 대한 内山(1990)의 연구에서 보면, SD평가에 의한 요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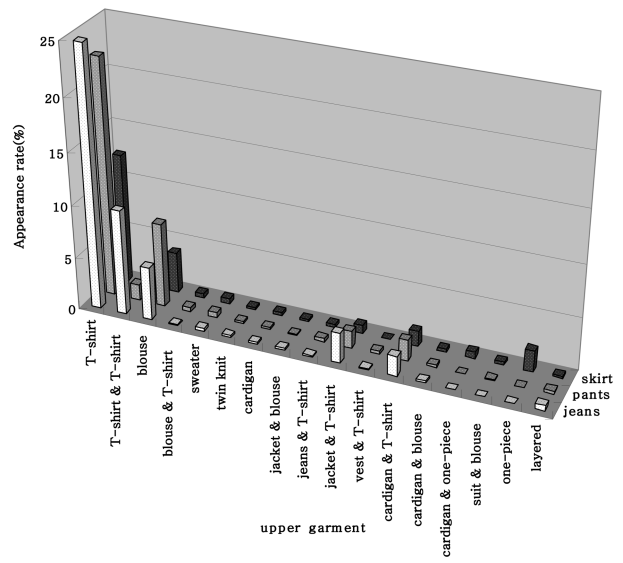


Fig. 2. Clothes type tabulation.

석의 결과 타이트 스커트는 제1요인(이성도·남자다운; 여자다운), 제2요인(개성·평범한; 개성적인)에서 주름 스커트와 플레어 스커트보다는 여자답지 못하면서 평범한 스타일의 이미지로 있었다. 캠퍼스 내에서는 여성스러움을 추구하기보다 평범하고 기본적인 실루엣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스커트의 길이는 무릎길이가 전체 스커트 중 48.7%, 미니길이가 43.0%, 롱길이가 8.3%로보여져, 기본적인 길이와 현재 유행되고 있는 미니길이가 적절히 병행되어 보여지고 있는데 이는 기능성과 유행성을 균형있게 코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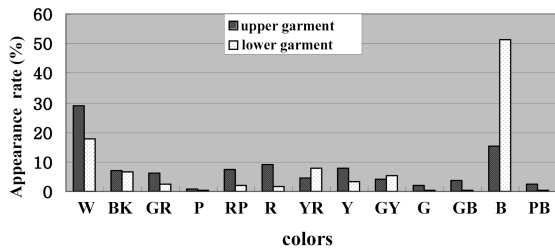
Fig. 2에는 상의와 하의의 조합을 종류별로 출현비율을 이용해 비교했다. 상의 T셔츠와 하의 청바지가 24.8%, 상의 T셔츠와 하의 바지가 22.6%, 상의 T셔츠와 하의 스커트가 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러종류의 아이템과의 조합이 보여지고는 있으나 상의 T셔츠와의 코디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3.2. 의복의 색채경향

패션에서의 색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색채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각하는 디자인 요소로서 개인의 기호, 개성, 심리에 반응하는 다양한 감정효과를 지니며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도 큰영향을 미친다. 의복에 대한 착용색과 선호색은 차이가 있으므로(박혜령, 2000; 김미영, 2002) 색채기획시에는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색채선호에 대한 정보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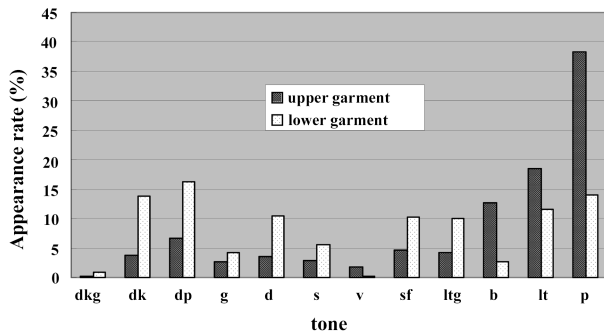
색채의 식별은 PCCS를 이용해 각각의 의복과의 유사색과 유사톤을 선정해 분류하고 결과를 Fig. 3에 나타냈다.

우선 하의의 경우, 블루계가 70.4%로 압도적으로 많이 보여졌는데 의복의 종류별 착용수를 표시한 Table 1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청바지의 착용률이 높은 것에서 오는 현상으로 보여



(W:White, BK:Black, GR:Grey, P:Purple, RP:Reddish Purple, R:Red, YR:Yellowish Red, Y:Yellow, GY:Greenish Yellow, G:Green, GB:Greenish Blue, B:Blue, PB:Purplish Blue)

Fig. 3. Distribution of upper & lower garment colors.



(dkg:dark grayish, dk:dark, dp:deep, g:grayish, d:dull, s:strong, v:vivid, sf:soft, ltg:light grayish, b:bright, lt:light, p:pale)

Fig. 4. Distribution of upper & lower garment tone.

진다. 청바지의 선호색상을 조사한 연구(이정숙·성수광, 2004)에서 청바지를 대표하는 색상은 블루계이지만 소유하고 싶은 청바지의 색상에서 블루계 보다 타색상이 높게 분석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 청바지의 색상은 대표색으로 선정한 블루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블루진의 경우, 다양한 색상의 변화보다는 디자인 및 워시(Wash) 가공등의 다양한 블루톤이 소개 되어져 블루계가 청바지의 대표되는 색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블루진의 블루계의 선호현상은 은영자·박소희(1996)과 김영인·조민정(2000)의 연구에서도 보여 지는 결과와 같이 시각 생리면 에서 블루계는 시각적 작용이 아주 강해 실제의 크기보다 작게 보이는 「축소색」의 성질을 갖고 있어(하용득, 1986) 다소 신체를 날씬하게 보이려고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선호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상의의 경우, 흰색이 29.0%로 가장 많이 보여졌고 다음으로 블루계가 15.3%이고, 그 외의 색상은 10%미만으로 보여 졌다. 김영자(1995)의 의복색 선호도에 대한 고찰에서도 상의의 착용 기호색으로 S/S 시즌에 흰색을 선호하고 있었고, 김영인 외(2000)의 연구에서도 봄에는 연하고 차분한 색채의 의복을, 여름에는 산뜻하고 가벼운 색채의 의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봄과 여름에는 흰색이 선호되고 있는 결과 및 조사내용으로 보아 이것은 계절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하의에는 블루계가 많이 보여져 블루계와 코디가 쉬운 화이트계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사색상의 대비가 사용

Table 2. Blue color system's distribution

Tone	Number	Percentage(%)
pale	29	2.9
light grayish	25	2.5
light	146	14.8
bright	31	3.1
soft	131	13.3
strong	75	7.6
vivid	2	0.2
deep	226	22.9
dull	126	12.8
dark	185	18.7
grayish	0	0
dark grayish	12	1.2
Total	988	100

되어졌다고 생각되어진다. 상의는 하의보다 연한 색상을 선호하여 하의의 짙은 색상으로 날씬하게 보이려는 심리현상으로 풀이되며(정삼호 1987), 또한 서화숙·송정아(2004)의 연구결과에서 처럼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날씬해 보이려는 경향이 있는 것과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톤의 분포(Fig. 4)에서도 보면 상의의 경우 페일 톤이 압도적으로 많이 착용되고 있었고 라이트 톤, 브라이트 톤 등 밝고 연한 톤이 사용되어져 계절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결과는 시즌에 따른 여성복의 톤을 분석한 김영인·조민정(2000)의 연구에서도 보여져 S/S시즌에는 밝은 톤인 페일 톤, 라이트 톤, 브라이트 톤의 사용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4년의 S/S시즌의 화이트 및 밝은 계통의 페미닌 무드의 유행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하의의 경우, 상의보다는 어두운 톤이 많이 착용되어지고 있었고, 상의에서 밝은 톤이 어두운 톤 보다 출현빈도수가 높은 것에 비교해 하의에서는 닥 톤, 다크 톤, 덜 톤 및 페일 톤, 라이트 톤, 소프트 톤 등 고루 착용되어지고 상의보다는 다양한 톤의 분포를 나타냈다. 하의의 경우, 블루계가 70.4%로 타색상보다 출현율이 많기 때문에 타색상을 제외한 블루계만의 톤의 분포를 Table 2에 표시했다. 그 결과 청바지의 색상이었던 대부분의 블루계 톤 분포는 대표적인 청바지의 기본색상인 닥 톤이 22.9%로 많이 보여 졌고, 다크 톤, 덜 톤이 각각18.7%, 12.8%로 나타났다. 그 밖에 라이트 톤과 소프트 톤이 14.8%, 13.3%로 나타나 계절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다양하게 톤의 변화를 주며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의복의 관심도가 많은 여대생의 학교 내 착용의복의 형태와 색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여대생의 착용형태 및 색채를 비디오 촬영에 의한 정점관측법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의로는 T셔츠가, 하의로는 바지류가 압도적으로 많이

착용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의복선정시 중요시하고 있는 측면은 무엇보다 활동성이 좋은 아이템들을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착용하고 있어, 학교에서는 기능성을 중시하는 캐주얼한 의복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디자인의 형태를 살펴본 결과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형태(바지-스트레이트형, 스커트-타이트형)를 많이 착용하여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형태와 기능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선호되고 있었다.

2.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의복의 착용색에 대한 조사에서는 상의의 경우, 흰색이 많이 보여 졌고 하의의 경우, 블루계가 많이 보여 졌는데, 이는 청바지의 착용이 많아 보여 지는 현상이라 생각되어진다. 하의에는 블루계가 많이 보여져 블루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사색상의 대비와 코디가 쉬운 흰색이 많이 사용되어졌다고 생각되어진다.

3.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의복의 착용톤에 대한 조사에서는 상의의 경우, 페일 톤 및 라이트 톤, 브라이트 톤 등 연하고 밝은 톤이, 하의에서는 닥톤, 다크톤, 딜톤 및 페일톤, 라이트톤, 브라이트톤이 고루 분포되어있어 상의 보다는 하의 착용 톤의 분포가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청바지의 경우, 기본 톤인 닥톤이 가장 많이 착용되었고, 그밖에 다크톤, 딜톤, 라이트톤, 소프트톤등이 착용되어 다양하게 톤의 변화를 주며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여대생의 캠퍼스내 의복은 활동성과 기능성이 있는 캐주얼 의류가 많이 착용되어지고 있었고 단일 아이템중 많이 착용되어지고 있는 청바지에 맞추어 색상과 톤을 전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여대생을 타겟으로 하는 어패럴 업체에서는 이런 선호아이템의 디자인개발과 색채개발 등 다양한 전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점관측을 통한 여대생의 착용경향을 조사해 여대생의 의복의 형태와 색채의 특징이 파악되었고 이는 앞으로의 여대생의 의복소비태도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소비자 수요의 객관화를 위한 조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조사지역이 서울 일부지역에 국한되었고, 조사 시기도 한 시즌으로 한정시켜 비교분석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다양한 지역 및 계절 등에 의한 비교등을 고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혜원 · 고애란 (1987) 여대생의 의복목록 비교분석. *연세대생활과*

학논집, 1, 1-13.
 고은주 (2001) “패션정보산업”. 경춘사, 서울, p.2.
 김미영 (2002) 일반색·의복색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특성 및 차이. *한국의류학회지*, 26(8), 1165-1176.
 김영인 · 한소원 (2000) 한국 성인남녀 선호의복의 색채와 색채이미지. *한국색채학회지*, 14(1), 47-54.
 김영인 · 조민정 (2000) 국내 패션업계에서 활용하는 복종별 색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14(1), 9-19.
 김영인 · 문영애 · 한소원 (2000) 한국 성인남녀의 의복 선호색. *한국 의류학회지*, 24(7), 964-975.
 김영자 (1995) 대학생의 의복색 선호도에 대한 고찰. *안성산업대학교 논문집*, 27, 509-530.
 김영자 (1998) 여대생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안성산업대학교 논문집*, 30, 283-289.
 김희숙 · 최종명 (2001) 대학생의 의생활 및 의복소비 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0(3), 275-290.
 노경혜 · 이경희 (2002) 부산지역 청소년의 스트리트 패션 경향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2), 176-187.
 박혜령 (2000) 선호색상과 의복선호색상의 차이. *한국색채학회지*, 14(1), 29-35.
 서희숙 · 송정아 (2004) 여대생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신체만족도 및 의복만족도, 외도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3), 329-335.
 유지현 · 한명숙 (2000) 여대생의 의복착용동기와 패션경향. *복식문화연구*, 8(1), 65-76.
 은영자 · 박소희 (1996) 20대 남녀의 의복색상 선호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4(3), 305-323.
 이은희 · 전경란 (2001)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장신구 착용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0(1), 113-116.
 이정숙 · 성수광 (2004) 성별에 따른 청바지 착용자의 의복행동 차이.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3), 336-340.
 이호정 (1998) “패션머천다이징”. 교학연구사, 서울, p.72.
 임경복 · 임숙자 (1993)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의복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359-366.
 임경복 · 임숙자 · 조진숙 (1995) 세대별 가치관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4), 359-366.
 정삼호 (1987) 성인 여성의 의복에 대한 색채 및 배색선호에 관한 연구. *가정문화논총*, 1, 137-152.
 주재은 · 정명선 (2000) 여대생의 내향적·외향적 특질과 신체 만족도에 따른 의복 이미지 선호도. *가정과학연구*, 10, 80-90.
 최종명 · 김선경 · 김선주 · 김인숙 (1996) 청주지역 여대생의 유행의상 디자인 선호도 및 의복구매행동. *한국생활과학회지*, 5(1), 65-73.
 하용득 (1986)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서울, p. 216.
 川崎健 (1988) “被服デザイン・色彩論”. 日本衣料管理協會, 東京, p.36.
 内山生 (1990) “感性的被服概論”. 文教出版, 東京, p.87.
 (2005년 1월 17일 접수)